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	코스닥	↓
3853.26		863.95	
(-151.59)		(-27.99)	
금리	↓	환율	↑
2.872		1471.50	
(-0.036)		(+3.60)	

‘국방비 2400억弗’ 중동의 선택은 K-방산

공동개발·현지생산 ‘완성판’ 협력

R&D 비용 부담 증가에도 세계 최대급 국방비 기반 장기프로젝트 수요 기대감 수출 기회요인 동시 존재

한국과 중동의 방산 협력이 단순 수출을 넘어 개발·생산·공동 진출을 묶은 ‘완성형 패키지’로 전환하면서 K-방산이 구조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동의 개발 단계 참여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R&D(연구개발) 부담은 커지지만, 세계 최대급 국방수요를 기반으로 수출 규모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중동지역과의 방산 협력 구조가 뚜렷하게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의 방산수출은 국내 생산 후 해외 판매라는 완제품 중심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공동개발·현지생산·3국 공동 진출 등 하나의 체계로 묶은 ‘완성형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 방산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중동 국가들이 실제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게 될 경우 R&D 비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분기 기준 방산

4사의 누적 R&D 비용은 총 952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5670억원을 투입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KAI는 약 1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 현대로템은 27% 늘어난 1684억원, LIG넥스원은 약 868억원을 기록해 8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동 국가들의 협력 요구가 공동개발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플랫폼 개조·설계 단계부터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R&D 확장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R&D 부담 증가는 기업에 비용 요인이지만 중동 시장 특성상 기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중동 지역은 지난해 국방비로 2435억 달러를 지출한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비 지출 시장 가운데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803억 달러(약 118조)를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라엘(465억 달러), 튀르키예(250억 달러), UAE(240억 달러), 카타르(144억 달러) 순이다.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공동개발·현지생산 방식의 사업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협력이 깊어질수록 단순 물량 공급을



계속 오르는 서울 아파트 값

2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로 전주(0.17%) 대비 상승했다.

/뉴시스

넘어 장기 프로젝트 중심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이미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 등 4사의 올해 1~3분기 전체 수출액은 27조 217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10조 5342억원)의 약 2.6배 수준이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바이오 ‘빅2’, 글로벌 무대에서 CDMO 격돌

삼성 ‘순수 위탁’ vs 셀트리온 ‘현지생산·판매’

삼성, 초격차 생산 기반 확대 셀트리온, 美공장인수로 직면

K-바이오 ‘투톱’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경쟁 구도를 새롭게 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위탁 개발생산(CDMO)’ 체제를 확립하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파트너로 위상을 높이고,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직접 생산·직접 판매 전략을 강화한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일 재상장을 계기로 ‘순수 CDMO’ 체제에 시동을 건다. 지난 5월 CDMO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발표한 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과 상품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CDMO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

주 경쟁력은 지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11월 기준 누적 주주 금액은 5조 5193억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연간 주주 금액 5조 4035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초격차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대 등 3대 성장축 전략에 속도를 낸다. 특히 ‘제2 바이오캠퍼스’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지난 4월부터 18만 리터의 5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이후 같은 규모의 6공장 증설 계획도 밝혔

다. 8공장까지 순차적으로 추가해 오는 2032년 제2 바이오캠퍼스 건설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132만 4000리터의 생산 능력으로 초격차 생산 규모를 유지하게 될 예정이다.

생산 시설 확대와 함께 항체·약물접합체(ADC), 아테노연관 바이러스(AAV), 사전충전형 주사기(PFS)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L2면에 계속〉

/이정하 기자 mlee236@

社告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休&休’ 2025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인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사방식: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수 상 명: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수상작 선정: 11월 27일



지난해 ‘조경혁신대상’을 수상한 GS건설 ‘복수원 자이렉스비바’.

metro[®]

M-커버스토리

사라지는 인간 창작의 경계 ‘진정성’ 논쟁, 다시 불 붙다

AI, 어디까지 예술인가

AI 침투에 흔들리는 예술성 창작 기준 재정립 요구 확산

“남은 AI보다 쳐 못 그리는 데 왜 그림?”

지난 21일 한 사용자가 X(옛 트위터)에 올린 짧은 두 문장이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익명의 공격자에게 “선생님도 챗GPT보다 멍청한데 살아계시겠습니까?”라고 맞받아친 DM(다이렉트 메시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

해당 게시글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영혼 없는 비위 맞춤을 풍자하는 밈(유행 콘텐츠) “너의 그 대답 핵심을 찔렀어”라는 밈글로 화룡점정을 찍으며 23일 오후 12시30분 기준 2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바야흐로 대(大) AI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예술과 창작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관련기사 3면〉

AI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기 전,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 예술 영역을 인간이 기계에 뺏기지 않을 최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AI의 상용화가 본격화되자 예술 분야가 가장 먼저 AI에 의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침식됐다.

올 11월 AI 가수의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인간이 AI를 활용해 만든 작품뿐만 아니라, 창작의 주체가 AI인 영역에서조차 AI가 인간을 압도하는 사례가 나온 것. 인간은 AI의 최후 보루 침범을 바짝 경계하며 ‘예술의 진정성 수호’를 앞세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

메트로 한줄뉴스



▲이준석 “국힘과 연대 가능성 없어, 스스로 그릇 넓힐 것” /사진 뉴시스

▲李 청와대 복귀에 국방부도 옛집으로… 이사비는 240억원

▲전현희, 내란재판부 도입 거둬 주장… “尹에게 인에 반격 기회 줘선 안돼”

▲與 지도부, YS 추도식 전원 불참… “이러니 개 말·김어준 아바타”

▲‘의석 1%’ 장애인인 과대표? 김예지 “정작 과대표는 법조인”

▲尹선고 임박인데 ‘내란특판’ 밀어붙이는 與 강경파… 당내도 ‘우려’